

보도설명자료 (‘12. 3. 6.)

수신 : 지식경제부 등록기자

제목 : 경향신문 “UAE와 유전개발 본계약... ‘10억배럴 채굴권’은 빠졌다” 보도에 대한 설명

1. 기사요지 (‘12.3.6. 경향신문)

- 한국석유공사가 작년 3월 UAE 아부다비 석유공사와 최소 10억 배럴 이상의 원유 채굴권 계약 관련 MOU를 체결한 바 있으나 이번 5일 본계약에는 이 부분이 빠져있음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지식경제부의 입장

- 작년 3월, 대통령 UAE 순방 당시 UAE측과 두 가지 협의를 진행한 바 있음
 - 우선 3개 미개발 유전에 대한 독점적 참여를 위해 ‘3개 미개발 유전 주요 조건 계약(HOT, Heads of Terms)’을 맺음
 - 그리고 10억 배럴 이상 생산유전에 대한 우선적 참여를 보장 받는 ‘석유가스 분야 개발 협력 MOU’를 맺음
- 금번 3.5일 체결한 계약은 작년 3월 맺은 ‘3개 미개발 광구 주요 조건 계약’에 대한 본계약으로 10억 배럴 이상 생산유전 참여는 별개의 계약 대상임
- 10억 배럴 이상 유전 참여 협상은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3개 미개발 유전 계약이 체결된 만큼 이제부터는 10억 배럴 이상 생산유전에서도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협상을 추진할 예정임
- 정부는 내년 중 협상 완료가 예상되나 금년 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

☞ 자료문의 : 지경부 자원개발전략과 전민영 과장(02-2110-5530)
지경부 자원개발전략과 김종연 사무관(02-2110-5432)